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탐색적 연구

소 선 숙 명 재 신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의 예측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예측변인들을 세 가지의 범주, 즉 인구사회적 요인들, 개인적 요인들, 그리고 가족관계요인들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남녀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종 383부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고,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둘째, 개인적 요인에서는 성별과 인터넷 사용기간 및 학업성적이, 그리고 셋째, 가족관계요인들 중에서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문제형일수록,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인터넷중독을 더욱 결정하는 주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와의 개방적인 대화시간을 많이 갖게 될수록 인터넷중독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의미를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중독, 인터넷중독,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화시간

^{*} 고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청송, (43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과, Tel: 031-249-9367, E-mail: drcsk@kyonggi.ac.kr

중독이란 탐닉의 결과로 많은 비용이 초래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외적 제약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 없거나 치료 없이는 행동을 그만두기 어려운 과도한 탐닉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국어대사전에는 “중독은 생체가 약물·독물·독소의 독성에 치여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이희승, 1988). Orford(2001)는 인간에게 일상적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과도해졌을 때 삶의 질을 손상시키고 특정시점에서는 자기조절이 어려워지고 과도하게 되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대상이나 활동에 대한 탐닉이 중독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독과 관련하여 김교현(2002)은 “조절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절하기 어렵고, 그 결과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생활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중독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핵심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과 관련된 중독이라는 말은 담배나 본드 및 가스 등과 같은 물질에 빠진 불량청소년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휴대폰중독, 온라인 쇼핑중독, 인터넷게임중독 등과 같은 용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첨단기기들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서 나타나는 이른바, 접속증후군(interface syndrome)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되었다. 접속증후군이란 항상 누군가와 접속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현상을 뜻한다. 또한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동안 특정 사이트를 자주 접속하는 잠재적 접속증후군 또는 잠재적 인터넷중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95% 이상이 게임과 오락 등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재미와 즐거움 및 성취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점점 인터넷에 빠져들고, 그것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초래 받게 되고 일상생활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되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에 있다.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인터넷중독 고위험군과 잠재 위험군 모두를 합쳤을 때 고등학생은 14.7%, 중학생은 14.3%, 그리고 초등학생은 12.8%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의 조사에서도 9~19세의 약 2.3%(16만8000여명)가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이며, 12%(86만7000여명)는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는 2%(1만2000여명)가 고위험군이고, 3.8%(2만2000여명)가 잠재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서 인터넷중독이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07)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3,443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학생의 98.1%, 고등학생의 97.1%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14%가 중독의 위험상태에 처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보였으며, 청소년 사이에 가장 빠지기 쉬운 인터넷중독 순위는 1위가 게임

(47.65%), 2위가 채팅 및 이성교제(21.37%), 3위가 음란물(7.2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게임에 47.2%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온라인게임에서 한 것처럼 현실에서 똑같이 해보고 싶은 욕구를 47.7%가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대부분은 인터넷게임이나 채팅을 통해 인터넷에 중독되었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은 대체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짙은 게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인터넷중독척도를 공식화 시킨 Young(1996)은 인터넷중독의 하위유형을 대화방이나 동호회에 몰두하는 사이버교제중독, 온라인섹스나 폰섹스·포르노에 몰두하는 사이버섹스중독, 사이버도박·주식·쇼핑을 충동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강박증, 컴퓨터게임이나 프로그램짜기를 강박적으로 하는 컴퓨터중독, 웹서핑이나 자료검색을 과도하게 하는 정보중독과 같은 다섯 가지의 하위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어기준(2000)과 하지현(2000)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중독의 하위유형은 게임중독, 통신중독, 음란물중독이라고 보고하였다.

인터넷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Goldberg(1996)는 DSM-IV의 물질남용장애(substance abuse disorder)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최초로 인터넷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와 개념적 진단준거를 제안하였다. 즉 인터넷중독을 DSM-IV의 알코올이나 다른 충동조절장애처럼 실재하는 행동장애로 규정하고, 병적인 도박장애를 기준으로 인터넷중독의

준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다른 중독과 같이 인터넷중독 역시 통제상실, 금단증상, 사회적 고립감, 가정불화, 학업실패, 업무능력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장차 마련될 DSM-V에는 “사이버중독 또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포함시킬지가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독과 관련하여,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은 그 심각성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중독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는 물론 사회전체의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들이 인터넷 사용시간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청소년들은 중독이 되는 반면, 어떤 청소년들은 중독이 되지 않고 자기조절을 이루면서 인터넷을 건전하게 활용하고 있는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몰입(flow)한다고 해서 청소년 전부가 중독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몰입의 측면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인터넷중독의 관련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인터넷중독의 관련변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학교성적 및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평수, 2010),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생태체계 변인연구(류진아, 2004), 청소년의 학습동기 및 학업관련 부모행동과 인터넷중독의 관계(박종수, 2003), 중학교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관련 요인(오원옥, 2005), 청소년 온라인게임 몰입과 중독화 중재변인 연구(부정민, 조유진, 2010),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현상 관련 변인분석(김혜원, 2001; 이계원, 2001), 학교성적과 인터넷중독의

관계(김혜정, 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관련 변인연구(박정은, 2001; 이효정, 2009; 정민희, 2003; 한미영, 2006), 인터넷중독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모형탐색(표현정, 이민규, 2009), 인터넷 및 게임중독 관련 변인연구(강희양, 손정락, 2007), 그리고 인터넷게임 중독과 자기조절모형(김교현, 최훈석, 2008)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고(김혜원, 2001; Iskender & Akin, 2010),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 가능성과 충동성(Cao, Su, Liu, & Gau, 2007) 및 문제해결능력(이소영, 2000) 간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결과도 있다. 백공주(2001), 송숙자와 심희옥(2003)은 인터넷게임중독 청소년들과 학습간의 관계를 보고하였으며, 권준모(2001)는 인터넷중독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생활의 장애와 가족간의 대화부족이 초래된다고 하였다. 임진형의 연구(2007)에서는 학교성적이 하위권일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고, 그 결과 인터넷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유평수(2010)는 학생들의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문제형 의사소통일수록 휴대폰 중독성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석수(2007)의 연구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의 관계에 따라서 중학교남학생의 인터넷중독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Iskender과 Akin(2010)도 인터넷중독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과 학업적 통제소재(academic locus control)의 지각 여부간의 관련성을 보여준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은 크게 인구사회적 요인,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중독에 빠져드는 변인들 중에서 인구사회적 요인(부모의 교육정도, 월평균 가구수입, 부모의 직업 및 부모의 맞벌이 유무, 가정의 경제적 형편), 개인적 요인(성별, 학년별, 인터넷 사용기간, 학업성적), 그리고 가족관계요인(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인터넷 사용 정도, 일주일간의 부모와의 대화시간, 형제관계, 가족관계, 부모의 연령)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다시 한번 탐색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낼 수 있다면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예방적 그리고 개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요인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방법

참여자

본 연구의 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특정 케이스의 값이 중앙값에서 많이 벗어난 자료적 가치가 낮은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383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180명, 여학생 203명이었

고, 중학교 1학년이 67명, 2학년 104명, 3학년 52명,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160명이었다.

측정도구

종속변수는 인터넷중독 상담센터나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Young(1998)이 개발한 척도를 이시형(2000)이 번안한 인터넷 중독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터넷의 의존성, 내성, 심리적, 신체적 금단증상을 측정하는 네 개의 하위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①전혀 아니다~⑤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인터넷중독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 중 비교적 심리측정적 특성이 양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독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척도를 사용한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시형(2000)과 Young(1998) 등의 분류에 따라 총 100점 만점 중 20-49점까지인 응답자는 인터넷 비중독경향군으로, 50-79점까지는 초기중독자로, 그리고 80-100점까지는 인터넷 중독 경향군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적 요인 :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는 부모의 학력과 교육정도, 월평균 가구수입, 부모의 직업 및 부모의 맞벌이 유무,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같은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각각 독립변인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적 요인 : 개인요인으로는 성별과 학년별, 인터넷 사용기간, 그리고 학업성적이었다. 인터넷 사용기간은 1년 미만부터 4년 이상까지 총 5단계 (①1년미만, ②1-2년, ③2-3년, ④3-4년, ⑤4년 이상)로 측정하였고, 학업성적은 학급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부터 하위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가족관계요인 : 가족관계요인으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인터넷 사용 정도, 일주일 간 부모와의 대화시간, 형제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았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방식은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검사인 PACI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한 청소년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아버지와 어머니 20문항; 각 10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아버지와 어머니 20문항; 각 10문항))의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고 있다(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문제성이 적음을, 그리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민혜영(1990)의 연구에서 개방형 의사소통이 .94, 문제형 의사소통이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와 .8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인터넷 사용 정도는 “부모님의 인터넷 사용정도는 어떠합니까?”라는 설문(①전혀 사용을

못함, ②보통, ③아주 잘 사용함)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측정하였고,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은 실제로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을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형제관계는 형제 중 몇 번째 자녀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고, 가족관계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혼, 별거, 재혼, 한부모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부모의 연령은 5년 간격을 두면서 5단계로 평가하였다.

자료분석

분석방법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및 가족관계요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correlation coefficient),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인 특

징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성별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분포의 정상성을 고려해 볼 때 성별에 따른 편향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연구문제 1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교육정도, 월평균 가구수입, 부모의 직업 및 부모의 맞벌이 유무,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부모의 맞벌이 요인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2.858$, $p<.05$),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연구문제 2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학년별, 인터넷 사용기간, 그리고 학업성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 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전체	%
		남자	여자		
학년	중1	29	38	67	17.4
	중2	49	55	104	27.1
	중3	27	25	52	12.2
	고2	75	85	160	43.3
	전체	180	203	383	100.0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성별($F=19.940$, $p<.001$)과 인터넷 사용기간($F=4.705$, $p<.001$), 그리

고 학업성적($F=5.084$, $p<.01$)이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년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과는 구분 없이 학업성적과 인터넷 사용기간 및 성별이

표 2.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변량분석결과

변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모의 교육정도	집단간	1366.219	5	273.244	1.158
	집단내	89219.028	378	236.029	
	합계	90585.247	383		
월평균가구수입	집단간	83.905	5	16.781	0.70
	집단내	90501.342	378	239.422	
	합계	90585.247	383		
부모의 직업	집단간	1617.319	5	323.464	1.374
	집단내	88967.929	378	235.365	
	합계	90585.247	383		
부모의 맞벌이	집단간	3299.554	5	659.919	2.858*
	집단내	87285.654	378	230.914	
	합계	90585.247	383		
경제적 수준	집단간	988.506	5	197.701	.839
	집단내	89596.741	378	237.028	
	합계	90585.247	383		

* $p< .05$

표 3. 개인요인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변량분석결과

변인	변량원	변량원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집단간	8583.184	2	4291.592	19.940***
	집단내	82002.064	381	215.229	
	합계	90585.247	383		
학년별	집단간	340.855	3	113.618	.478
	집단내	90244.392	380	237.485	
	합계	90585.247	383		
인터넷 사용기간	집단간	5307.129	5	1061.426	4.705***
	집단내	85278.118	378	225.603	
	합계	90585.247	383		
학업성적	집단간	4581.605	4	1145.401	5.084**
	집단내	86003.642	379	226.923	
	합계	90585.247	383		

** $p<.01$, *** $p<.001$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관계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따른 인터넷중독은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함께 성별 및 전체를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자녀의 인터넷중독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는 $r=-.129$ 였고,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는 $r=-.336$ 으로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문제형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r=.244$ 이었고,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r=.362$ 로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서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8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중독을 결정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이었으며($\beta=.395$, $p<.001$), 이외에도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7$,

표 4.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총점간의 Pearson 적률상관

	부 개방적 의사소통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 개방적 의사소통	모 문제형 의사소통	인터넷 중독 총점
부 개방적 의사소통	1				
부 문제형 의사소통	.107**	1			
모 개방적 의사소통	.454**	-.141**	1		
모 문제형 의사소통	-.215**	.278**	-.617**	1	
인터넷 중독 총점	-.129**	.244**	-.336**	.362**	1

** $p<.01$

표 5.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의사소통유형의 회귀분석결과(여학생 $N=203$)

예측변수	R^2	adjusted R^2	B	β	F	t
모 문제적 의사소통	.156	.152	.724	.395	36.152	6.013***
모 문제적 의사소통+						
부 문제적 의사소통	.178	.170	.633	.346	21.075	5.045***

* $p< .05$, *** $p< .001$

표 6.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 의사소통 유형의 회귀분석결과(남학생 $N=180$)

예측변수	R^2	adjusted R^2	B	β	F	t
모 개방적 의사소통	.112	.107	-.655	-.335	23.187	-4.815***
모 개방적 의사소통+						
모 문제적 의사소통	.145	.135	-.430	-.220	15.469	-2.712***

** $p< .01$, *** $p< .001$

$p<.001$). 즉 어머니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딸의 인터넷중독을 15.6%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아버지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 경우는 2.2%를 설명하며 역시 .001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 경우와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 경우, 그리고 부모가 모두 문제형 의사사통을 할 경우 청소년 딸의 인터넷중독은 심각해짐을 보여주었다.

표 6에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중독을

결정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었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경우 아들의 인터넷중독을 11.2% 설명하였고, 어머니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3.3%를 설명하며 .001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경우 아들은 인터넷에 잘 중독되지 않으며($\beta = -.335, p<.001$), 어머니가 문제형의 의사소통을 할 경우 인터넷중독이 심각해짐을 보여주고 있다($\beta = .214, p<.01$).

표 7.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의사소통유형의 단계적 회귀분석결과(전체 N=383)

예측변수	R ²	adjusted R ²	B	β	F	t
모 문제적 의사소통	.131	.129	.785	.362	57.685	7.595***
모 문제적 의사소통+	.153	.149	.692	.319	34.524	6.503***
부 문제적 의사소통			.299	.155		3.163**
모 문제적 의사소통+			.433	.200		3.275**
부 문제적 의사소통+	.176	.169	.311	.161	27.021	3.327**
모 개방적 의사소통			-.360	-.190		-3.213**

** $p< .01$, *** $p< .001$

표 8. 가족요인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변량분석결과

변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인터넷 사용정도	집단간	591.204	3	197.068	.832
	집단내	89994.043	380	236.826	
	합계	90585.247	383		
부모와의 대화시간	집단간	7905.662	5	1581.132	7.229***
	집단내	82679.586	378	218.729	
	합계	90585.247	383		
형제관계	집단간	1440.495	3	480.165	2.047
	집단내	89114.752	380	234.591	
	합계	90585.247	383		
가족관계	집단간	23063.430	4	5765.857	32.047***
	집단내	67521.818	379	178.158	
	합계	90585.247	383		
부모의 연령	집단간	1848.116	6	308.019	1.309
	집단내	88737.131	377	237.377	
	합계	90585.247	383		

*** $p< .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청소년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인터넷중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이며($\beta=.362, p<.001$), 인터넷중독을 13.1%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모두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인터넷중독은 2.2% 증가하면서 15.3%를 설명하였다($\beta=.319, p<.001; \beta=.155, p<.01$). 따라서부모가 모두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 경우 청넷중독을 예방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인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부모의 인터넷 사용 정도와 일주일간의 부모와의 대화시간, 가족관계, 그리고 형제관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요인으로는 부모와의 대화시간($F=7.229, p<.001$)과 가족관계($F=32.047, p<.001$)가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나, 부모의 인터넷 사용기간과 형제관계및 부모의 연령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 감소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부모나 부모의 별거 및 재혼부모를 둔 청소년보다 인터넷중독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그리고 가족관계요인들로 구분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중고등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교육정도, 월평균 가구수입, 부모의 직업및 부모의 맞벌이 유무,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중독을종속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만이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모두 밖에서의 경제적 활동 때문에 청소년자녀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어렵고, 또 자녀를 잘 돌보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맞벌이가구 지원 정책토론회, 2009>를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간 도시근로자가구 중 홀벌이가구는 1998년 53%에서 2008년 41%로 감소한 반면, 맞벌이가구는 26%에서 3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갈수록 맞벌이 부모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중독 가능성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모는 홀로 집에 남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청소년들이 자기관리의 대처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상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학년별, 인터넷 사용기간, 그리고 학업성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중독을 종속변인으로 각각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인터넷 사용기간, 그리고 학업성적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서 인터넷중

독이 다르다는 선행연구(김혜원, 2001; Iskender & Akin, 2010)들과 일치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인터넷사용기간이 길수록 인터넷중독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업성적은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추론해볼 수 있었다. 또한 장혜진(2002)의 연구에서는 휴대폰중독과 인구통계적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학교성적만이 휴대폰중독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인터넷중독 역시 학교성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휴대폰중독이 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곽민주, 이희숙, 2009)를 고려해볼 때 인터넷중독 역시 학교성적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중독이 학교성적을 저하시키는지 아니면 학교성적의 저하가 인터넷에 몰입하도록 만드는지의 인과관계는 추후연구에서 더욱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관계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자녀의 인터넷중독이 낮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문제형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중독을 결정하는 변인은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이었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컸음을 보여주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중독을 결정하는 변인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경우 아들은 인터넷에 잘 중독되지 않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문제형 의사소통일 경우 딸의 인터넷중독이 더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녀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이었고, 부모 모두가 문제형 의사사통을 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인터넷중독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는 부모양육태도와 의사소통(김경신, 김진희, 2003; 서화신, 2004; Barnes & Olson, 1985) 및 가족기능이 중요하다는 결과(김기리, 2007; 김정화, 2002)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역시 청소년아들과 딸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부모는 청소년자녀들과 자주 대화하되 개방적인 대화양식을 갖는 것이 인터넷중독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대화에 방임적이거나 또는 권위적이며 독재적인 대화양식을 가질 때 청소년들은 인터넷중독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상담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인터넷 사용 정도와 일주일간 부모와의 대화시간, 그리고 형제관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결과에서도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한부모나 이혼 및 별거와 같은 재혼 가족의 청소년들보다 친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중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대화양식과 실제의 대화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요인으로 시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맞벌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기간, 학교성적, 부모-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여

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와 의사소통이 잘 안될 때, 그리고 남자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인터넷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형태가 한부모일 경우와 이혼 및 별거와 같이 가족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남여청소년들 모두 인터넷중독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변인들로 구성된 인터넷중독의 상담예방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인터넷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은 우울증이나 자살사고 및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Kim et al., 2006), 심리검사를 통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면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하고, 고위험군은 정신보건센터(153개)와 협력병원(159개)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부모-자녀관계를 개방적으로 이끄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쟁과 효율이라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학생들의 성적향상 노력에 신중을 기하고,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실천 방안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남녀 중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중에서 인과관계를 더욱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강석수 (2007). 중학교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

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강희양, 손정락 (2007). 인터넷 게임중독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33-744.

곽민주, 이희숙 (2009).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실태와 중독적 이용.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183-205.

권준모 (2001). 컴퓨터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김경신, 김진희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6(1), 15-25.

김교현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김교현, 최훈석 (2008). 인터넷 게임중독: 자기조절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 (3), 551-569.

김기리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정화 (2002). 가족의 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 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김혜정 (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된 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류진아 (2004).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민혜영 (1990). Circumf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정은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종수 (2003). 청소년의 학습동기 및 학업관련 부모행동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

- 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공주 (2001). 게임중독과 우울 및 충동성의 상관성: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부정민 조유진 (2010). 청소년 온라인게임 몰입의 중독화에 대한 중재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1), 85-118.
- 서화신 (2004). 부모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숙자, 심희옥 (2003). 아동의 컴퓨터게임 몰두성향과 심리사회 및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5), 27-41.
- 어기준 (2000). 청소년의 컴퓨터 중독유형과 제반 문제점. 제19회 특수상담사례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원옥 (2005). 중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 및 중독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9(1), 33-49.
- 유평수 (2010). 중학생의 학교성적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양식과 휴대폰중독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 33-51.
-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소영 (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시형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효정 (2009).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요인과 그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희승 (1988).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임진형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혜진 (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민희 (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표현정, 이민규 (2009). 인터넷중독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모형의 탐색: 중독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31-548.
- 하지현 (2000). 청소년 PC중독의 원인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39, 14-25.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200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미영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rnes, H.,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o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Cao, F., Su, L., Liu, T. Q., & Gao, X.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Internet addiction in sample of Chinese adolescent, *European Psychiatry*, 22, 466-471.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 Iskender, M., & Akin, A. (2010). Social self-efficacy, academic locus of control, and internet addiction. *Computer & Education*, 54, 1101-1106.
- Kim, K. H., Ryu, E. J., Chon, M. Y., Yeun, E. J., Cho, S. Y., Seo, J. S., & Nam, B. W. (2006). Internet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 185-192.

- Orford, J. (2001). *Excessive appetites: A psychological view of addictions* (2nd ed.). New York: Wiley & Sons.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 John wiley & Sons.

원고접수일: 2011년 7월 15일

게재결정일: 2011년 8월 26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 Vol. 16, No. 3, 521 - 535

A Study of Predicting Variables for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Seon-Sook So · Jae-Sin Myung · Chung-Song Kim*

Department of Youth Studies

Kyongg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identify of predicting variables between the demographical factors, personal factors, family relationship factors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383 male and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statistics program used to achieve the purpose was SPSS/PC+ 17.0. The statistics methods applied were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es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data analysis. Parent's working together, internet use duration, academic records, and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function as predicting variables for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Especially, internet addiction level was higher for the adolescents whose parents have problem-oriented communication than those whose parents have open communication. Also, internet addiction level was higher for the adolescents those who have family structure problems than those who have not family structure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internet addiction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adolescent problems.

Keywords: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ime*